

다향오리

‘다이닝 펍’으로 소비자 공략 신사동 세로수길 ‘다향착한정육점’ 운영



육가공업체들이 최근 ‘다이닝 펍(Dining Pub)’을 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이닝 펍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간단한 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육가공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주류를 함께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오리 브랜드 다향오리는 서울 신사동 세로수길에 가금류 전문 다이닝 펍 ‘다향착한정육점’을 운영 중이다. 야외 테라스, 통 유리, 원목 인테리어, 오픈 키친으로 시원하게 꾸민 매장은 여느 오리고기 전문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메뉴도 이색적인 오리 요리, 닭 요리를 선보인다. 흑맥주에 3시간 숙성시킨 훈제 통오리 요리 ‘블랙비어 덕’, 기름을 짝 뺀 로스트덕과 제철야채를 바삭하게 구운 또띠아 볼에 담아낸 ‘덕샐러드 인 또띠아플래터’, 부드러운 크림소스와 촉촉한 로스트덕의 조화 ‘화이트 크리미 덕’ 등이 이곳의 베스트셀러다.

●헤럴드경제 [2016.10.26]

주원산
오리

이우진 대표, 식품업체 최장수 CEO
하림 생산시스템 도입...시장점유율 상승



하림그룹(회장 김홍국)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의 이우진 대표 이사(사진)가 주요 식품업체 CEO 중 한 회사를 가장 오랫동안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내 식품 계열사 CEO 88명(퇴임자·중복자 포함)의 평균 임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기준 3.1년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회사 1곳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우진 대표는 2002년부터 14.7년간 주원산오리를 이끌고 있다. 주원산오리의 전신은 주원농산(1984년 설립)이었으나 같은 해 하림그룹이 인수, 주원산오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때 하림 재정담당 전무이던 이 대표는 주원산오리로 이동해 회사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림의 생산시스템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주원산오리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올랐다.

●CEO스코어데일리 [2016.11.16]



다영푸드

소비자 방문 · 체험 ‘현장 팸투어’ 진행 위생적 안전한 우리축산물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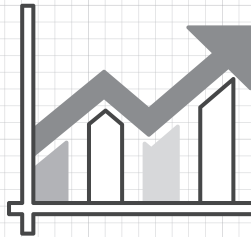
11월 16일 (주)다영푸드(대표 김대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주최로 열리고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의 주부 40여명이 참여한 ‘현장 팸투어’를 진행했다.

‘현장 팸투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를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체험과 직거래를 통해 가공제조업체에서의 축산물 관리 상태와 안전성, 품질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육가공품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리축산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촉진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대식 다영푸드 대표는 “먼저 소비자단체가 우리 회사를 방문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면서 연구개발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한 상용화 제품개발이 아니라 식품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며 “중소식품 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는 일이지만, 연구개발만이 돌파구이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신념하에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의 오리햄 개발, 독일 DLG메달 수상 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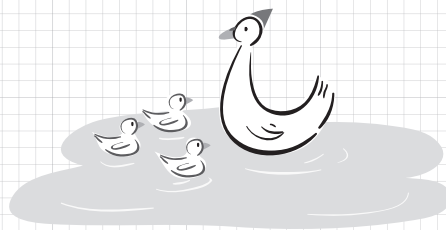
정다운

주식시장 상한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



11월 22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2개 종목이 상한가로 뛰었다.
오리육 및 오리털 생산 가공업체인 정다운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른 3,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7월 코넥스에 상장된 정다운은 LIG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을 통해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신선육, 가공육, 우모(오리털) 부문이 주요 사업이다.

●뉴스핌 [2016.11.22]



청정축산

진도 의신면 청정축산 박병연 대표 사랑의 오리알 · 닭 500마리 전달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진도군 의신면에서 거주하는 박병연 대표(청정축산)가 경로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400만원의 상당의 오리알 8,000개, 닭 500마리를 기증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올해로 4년째 소외계층을 위해 오리알(8,000개)을 기탁하는 등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병연 대표는 “지역민들을 위해 조그마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행복이다”고 말했다.

